“을축년 대홍수 100년, 청호 선사 정신 잇자”

11월 1일, 봉은사 미륵광장서 추모
희생자 극락왕생 · 국태민안 발원
708명 구한 청호 선사 자비정신
“자비와 연대 이어지는 계기 되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사단법인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재 보존회는 11월 1일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을축년 대홍수 추모문화제’를 열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했다.

서울 봉은사에서 을축년 대홍수 발생 10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민 708명을 구해낸 청호 선사의 자비 정신을 기리는 법석이 펼쳐졌다.

사단법인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재 보존회(이사장 원명 스님, 봉은사 주지)는 11월 1일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을축년 대홍수 추모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원명 스님과 선원장 관도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조계종 포교국장 도진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20세기 한반도 최악의 홍수’로 불리는 을축년 대홍수는 1925년 여름 한반도를 강타해 막대한 사상자와 피해를 냈다. 당시 봉은사 주지였던 청호 선사(1875~1934)는 사중 재산을 투입하고 직접 구조대를 이끌어 고립된 708명의 구하는 등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펼쳤다. 청호 선사의 보살행이 알려지자 1927년 스님의 공덕을 기리는 시와 그림을 엮은 〈불괴비첩〉이 출간됐고, 1929년에는 봉은사 경내에 ‘나청호대선사 수해구제 공덕비’가 세워졌다.

추모제 1부는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개식과 신중작법, 상단불공, 영단시식이 진행돼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2부 기념식에서 원명 스님은 “을축년 대홍수 당시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모았던 청호 선사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어려움을 절대 외면하지 말라’는 무언의 가르침을 준다”며 “나와 이웃, 나아가 국민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3부에서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국태민안을 기원한 봉은사연합합창단과 국악합주단의 추모가, 어쏘티드의 추모 뮤지컬, 봉은사무용단의 진혼무, 국악인 오정해 씨와 가수 정태춘 씨의 공연이 선보였다.

이날 봉은사 경내에는 을축년 대홍수의 참상을 전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진 전시와 발원문 달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펼쳐졌다.

“우리는 주인공!”…500 동국인 불자 거듭

동국대, 11월 5일 수계법회 봉행
돈관 스님 “참된 불자되길” 당부

500여 동국대 학생들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며 불자로 거듭났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11월 5일 본관 남산홀에서 ‘2025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지난 9월 16일 열린 ‘영캠프’ 참가 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을 위한 후속조치다. 올해 ‘영캠프’는 참가 신청 시작 2분 만에 매진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고, 500석 규모의 추가 신청도 접수 개시와 동시에 마감됐다. 이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의 수계법회 요구가 이어졌고, 학교 측은 이를 적극 수용해 수계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학생들의 열기를 반영하듯 본관 남산홀은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전계대화상으로 법상에 오른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스스로 수계를 발원해 법회를 열게 한 학생들에게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오계를 설했다.

돈관 스님은 “여러 인연을 거쳐 남산홀에 모여 수계를 받는 이 자리는 동국의 자긍심을 갖고 참된 불자로서 살아가겠다고 부처님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법석”이라며 “오늘의 약속들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입으로 몸으로 뜻으로 지었던 죄업들을 참회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삶의 바른 지혜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계를 수지한 학생들은 연비의식을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으며, 연비사 스님들은 500여 학생들에게 연비 대신 염주를 전달하며 학생들이 참된 불자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동참 수계자 전원에게는 동국대 통합모바일앱을 통해 ‘모바일 수계증’이 전달됐다.

전호빈 중앙불교동아리 회장(불교학부 2학년)은 “진정한 불자로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느낌”이라며 이어 “학교 통합모바일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수계증도 법명과 그 의미를 항시 되새길 수 있어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다잡는데 매우 용이하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는 11월 5일 본관 남산홀에서 ‘2025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을 비롯한 법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선사 주지 도심 스님 “중생 이익과 안락 위해 정진”

11월 6일, 경내서 진산식 봉행
진우 스님 등 1000여 명 참석
강북구에 백미 2000kg 전달도



11월 6일 봉행된 도선사 주지 도심 스님 진산식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오직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나아가라는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 정진하겠습니다.”(도심 스님 취임사 中)

서울 삼각산 도선사가 11월 6일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주지 도심 스님의 진산식을 성대히 봉행했다. 진산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지도자 스님과 정계 인사들이 대거 동참해 취임을 축하했다.

도심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역사와 종단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수행자의 본분과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 종단의 법통과 뭇생명을 외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살림을 살아가겠다”며 “도선사 사부대중과 함께 올리는 기도가 온 생명을 감싸고 종단을 외호하는 희망의 기도가 되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끝으로 도심 스님은 “선명상을 실천하며 정진하는 들숨과 날숨은 부처님의 자비로 화하여 세상에 퍼질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현장에서 도선사 대중이 함께하는 실천의 모범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도심 스님은 이날 백미 2000kg을 이순희 강북구청장에게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해 의미를 더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도선 국사가 이곳에 불법의 기틀을 세우고, 그 법맥 위에 청담 스님이 이 도량을 부흥의 근본도량으로 일으켰으니, 그 원력이 곧 오늘의 도선사를 있게 한 큰 인연”이라며 “이제 도심 스님이 그 위대한 원력의 등불을 이어받아 도선사 중흥과 서울 강북 지역의 신행 중심으로서 깨달음과 자비, 나아가 사회적 실천 도량을 펼쳐 가리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위령재

11월 18일 오후 2시 조계사서
‘안전하고 차별없는 사회’ 기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1월 18일 오후 2시 조계사 마당에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개최한다. 이번 추모위령재는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산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추모 위령재는 추모타종 및 영상, 추모사, 천도의식, 천도법문, 발원문, 유가족 인사, 위패 소전의 식으로 진행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천도법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숨진 영가와 유가족을 위한 법문과 함께 생명존중과 산재 없는 사회 공동체를 염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모 위령재 의식은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진행한다. 청혼·관욕, 상단불공, 천도법문, 화청염불, 영단시식으로 이어진다. 위령재에는 산재사망 유가족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며 국무총리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여해 함께 마음을 모을 예정이다. 참석자는 약 400명이다.

임은호 기자

Heungkuk 흥국생명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누구나 좋은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우HK보험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0822호)및 소속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사전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소비자보호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 : 국번없이 1332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 (당사홈페이지) ※승인번호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5-06402호 (2025-09-23~2026-09-22)